

(가칭)나라현 다문화공생 추진 계획(안)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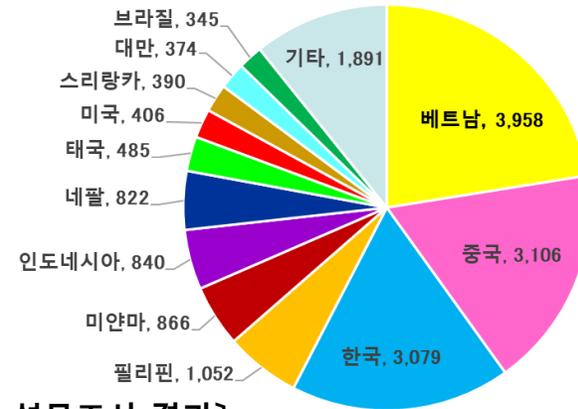
【나라현 거주 외국인 주민 현황】

- 나라현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7,614명으로 역대 최고치(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법무성 재류 외국인 통계자료)
- 베트남인이 가장 많고(5명 중 1명 이상),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등 동남아시아·남아시아 중심으로 출신국·지역이 다양화
- 취업에 관한 체류 자격(기능실습,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특정 기능, 기능 등)의 체류 자격자가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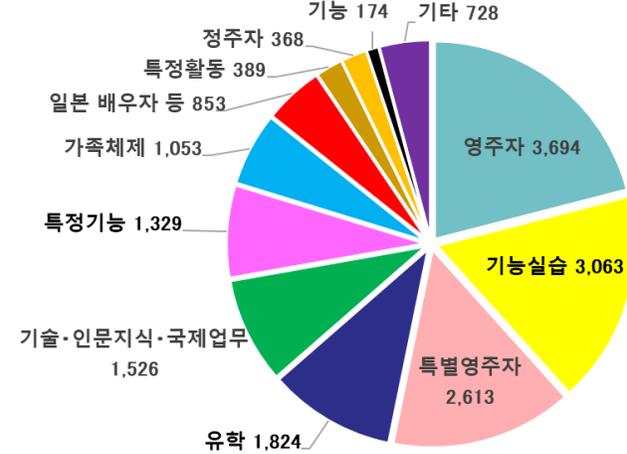
〈현내 거주 외국인 추이〉



〈출신국·지역별 현내 거주 외국인 (2023)〉



〈재류자격별 현내 거주 외국인(2023)〉



【2024년도 실시 나라현 거주 외국인 주민 설문조사 결과】

- 나라현에 살면서 곤란한 점으로는 '언어·커뮤니케이션'이 36.9%로 최다.
- 일본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일본인 친구나 지인'이 50.4%로 가장 많았고, 'SNS'(42.5%)가 그 뒤를 이었다.
- 과거 재해 시 곤란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피할 곳을 몰랐다'(12.1%), '경보·주의보 등 피난에 관한 정보가 다국어로 발신되지 않아 몰랐다'(11.4%), '피난소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9.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일본어를 배우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일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64.7%), '일본어 교실 정보가 없어서'(33.2%), '배우는 데 필요한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라현 다문화공생 시책 추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시정촌에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물론, 일본어 학습을 포함한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구급차를 부르는 방법도 모른다. 의료의 다언어화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친구를 사귀고, 지역에 융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습생이 지역 축제에 직접 참가하여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일본인과 외국인이 친구가 되고, 그것이 방재나 의료 등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라현의 다문화공생을 둘러싼 과제에 대하여】

- 커뮤니케이션의 과제
- 정보 제공의 과제
- 상담 및 주거 확보, 생활 서비스에서의 과제
- 방재 등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과제
- 지역사회에서의 과제
-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한 과제

(가칭)나라현 다문화공생 추진 계획(안)에 관하여

【나라현 다문화공생 추진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나라현에서는 아래 3가지를 기본 방침으로 하여 독자성을 살리면서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현뿐만 아니라 시정촌, 기업,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협동하여 단계적으로 추진(기간:2025년도~2027년도)

①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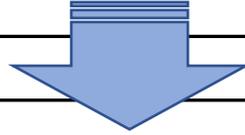
국적이나 민족 등에 관계없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②누구나 안전·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 주민과 마찬가지로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한 단계에서 적절한 행정 서비스 등을 향유하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안전·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③누구나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현민이 각자의 다양성을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이는 등,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내 기업, 대학, 지역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누구나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하여】

①커뮤니케이션 지원

- (1) 행정·생활 정보의 다언어화(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행정·생활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 행정서비스 등의 다언어화)
- (2) 상담체제의 정비·충실화(외국인 생활 상담체제의 정비·충실화)
- (3) 일본어 교육 추진(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는 인재 확보)

②생활 지원

- (1) 육아·교육의 충실(학교에서의 일본어 학습 지원, 미취학 아동에 대한 대응·취학 기회 확보, 육아·취학 전 교육의 다문화 대응, 학령기가 지난 외국인에 대한 배려, 다문화 공생에 입각한 교육 추진)
- (2) 재해 시 지원 등 안전 확보(재해 시 체제 정비, 방법·교통안전 추진)
- (3)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제공(다언어 대응 추진)
- (4) 주거환경의 정비(외국인 현민에 대한 공공주택 제공,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촉진)

③지역에서의 활약 지원

- (1) 취업지원(외국인 인재의 수용 체제 정비, 유학생 등의 현내 기업·사업소 등에서의 취업 촉진,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 촉진)
- (2) 유학생 지원(유학생 수용 확대, 유학생의 지역 활동을 지원)
- (3) 지역사회 활동 지원(다문화 공생의식 계발·육성, 지역사회 교류활동 지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